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80 1981년7월31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uly 31.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31 1981

플레이·볼!

야구선수들 파업 끝내

우편파업 협상은 결렬 위기

스-트-라익!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우편파업은 해체 가능성이 감감한데 비해 프로야구선수들의 파업은 끝나 덥고 지루한 여름에 한 줄기 시원한 납량제가 되었다.

시즌의 4분의 1이 넘는 50일간을 파업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31일 먼지 묻은 야구 글로브를 꺼내 다시 어루만지며 뱃트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선수대표들은 이날 아침 구단주 대표와 잠정협정을 체결, 파업후 첫경기인 올·스타전을 8월9일 크리브랜드에서 갖고, 다음날인 10일부터는 새로운 스케 줄로 야구게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야구선수까지 파업하는 이상한(?) 나라이므로 우편노조원들은 32일째 버티고 있다.

우편파업 협상 중재자알란·골드 판사는 30일밤"나는 낙관주의자이지만 이번 협상의 중재를 맡고부터는 비관주의자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나 노조는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기세여서 우편파업은 9월까지 계속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협상을 완전 결렬시키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의 문제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철강회사 노조원 3만여명이 1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캐나다최대의 철강회사 스텔코(Stelco)의 12,800명(해밀톤지역), 수세·마리 지역 알고마·스틸회사의 9,500명등 노조원은 임금인상등을 위한 경영진과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오는 16일을 시한으로 협상중이던 TTC(토론토서민교통기관)의노동협상은 파업을 노조측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캐나다 국영 CBC-TV 방송의 테크니션들은 기한도 없이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다.

트루도 수상은 국사를 본다는 핑계로 아프리카 모로코로 휴가 갔고, 의회는 장기휴회중이다.

이자율은 오르고, 달러가치는 떨어지는중 우체부의 발길은 끊긴 여름, C.N.E. 스타디엄으로 야구구경을 가든가, 아니면 하루종일 바보상자 TV와 싸움을 해야 될 판이다.

해 설

야구선수대표와 구단주 대표들은 잠정협정에서 말썽이 되던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보상문제를 1년간 연기하고, 10일부터 게임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유계약선수는 보수등 조건이 좋은 구단으로 아무때나 옮길 수 있는 선수들이다(※한국일보 29일자 6면).

구단주들은 선수들의 파업기간을 정규시즌 기간으로 간주, 연금이나 계약기간 계산에 포함시키기로양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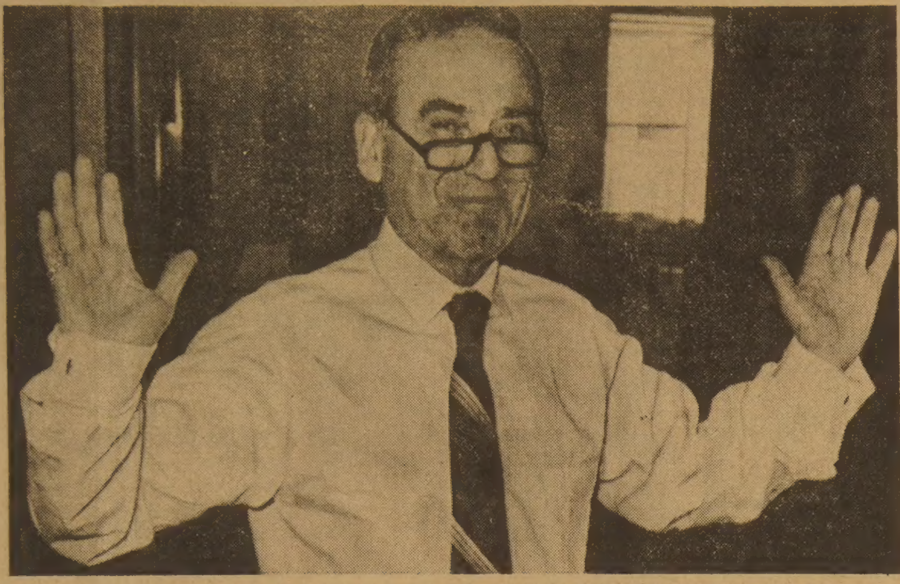
예정된 새 스케줄에 따르면 토론토 블루제이스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동부지역(토론토 소속)과의 경기는 6게임만 남고, 42게임을 서부지역팀과 벌여야 한다. 이같이 지역팀간의 경기진행혼란으로 새로운 스케줄이 필요하다.

한가지 재안은 6월10 일까지의 경기전적을 1차 리그로 하여 각지역 우승팀을 가린 후 1차리그우승팀과 챔피온 결정전을 가지게 한다.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는 16승42패로 아메리칸·리그 최하위를 마크하고 있으며, 또다른 캐나디안팀인 몬트리얼·엑스포스의 전적은 30승25패로 내셔날·리그 동부지역 3위로 선두팀 피라델피아와 4게임 차이가 있다.

이번 파업으로 선수들은 그 기간동안 봉급및 수당을 전액 잃었지만 구단들은 파업시작 10일후부터게임당 10만달러씩의 보상금을 보험에서 받았다.

◇잔·페로 우편노조장



◇"비관주의자가 됐다"고 말하는 우편파업협상 중재자 알란·골드판사. 협상이 완전 결렬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광복절행사

런던한인회(회장 하광용)는 8월15일(토) 상오11시 기부스공원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축식을 비롯, 어린이 게임, 배구경기, 지역대항릴레이, 줄다리기등 교민들의 단합·친목과 체위향상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벌어진다.

교포성원 힘입어 축구단 맹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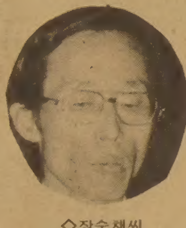
런던한인청소년축구단은 매주 화·일요일 맹연습을 거듭하며, 가끔 다른 팀들과의 경기때마다 큰 점수차로 이겨, 런던서는 최강팀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해준 교포는 정일송·박옥규씨이다.

박인순 임시집행부 출범

토론토한인회 과도운영체 구성

◇박인순과도운영위원장



◇장순채씨

◇장영채씨

한인회정상화대책위원회는 24일 제4차 모임을 갖고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약2개월간 한인회 운영을 맡게 될 임시집행부를 구성했다.

토론토한인회 과도운영위원회라고 명명된 이 집행부는 위원장에 박인순씨(오리엔탈·팔레스 사장), 부위원장에 장순채, 장영채씨이다.

한인회관 건물관리는 조한철 회관관리위원장이 계속 맡고 있다.

과도운영위원회는 이날 모임에서 신임 한인회장 선출방법등을 논의했다.

한인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한인회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칙상 입후보 등록기간은 1개월이며 선거는 등록 마감후 1개월 후에 열린다.

한편 사표를 냈던 회장 강우석씨는 29일 본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이미 사표를 냈지만 불법적 방법으로 구성된 과도운영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과도운영위원회에 대한 사무인계에 불응할 태도이다.

이에대해 박 과도위원장은 "우리는 토론토 교민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기관이다. 강우석씨의 인수·인계 거부와 상관 없이 한인회 운영 감사등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할 예정이다"면서 "이미 사표를 제출, 수리된 강씨의 행동은 아파트를 팔았으나 열쇠를 안 내놓겠다는 행위와 같다"고 개탄했다.

이자율「무섭게」올려

크레딧·카드사용에 요조심

최고 22%까지 오른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는 크레딧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24.6%까지로 밀어 붙였다.

몬트리얼은행은 29일 마스터·카드의 납부만기일이 지난 크레딧에 24.6%의 이자를 올가을부터 붙인다고 발표했다.

심슨·시어스 백화점도 크레딧사용자에게 28.8%의 새 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컴머스은행(CIBC)은 자기은행이 발행한 비자(VISA)카드의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의 연 21%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캐네디안·타이어도 28.8%로 크레딧카드 이자율을 높였다.

한편 로얄은행은 81년도 연평균 금리를 17.46%로, 82년도 평균금리는 이보다 낮은 16.49%로 예견했다.

주인공 라모타 피소

영화「성난황소」수난

작년가을부터 북미 영화계에서 큰 히트를 쳤던 영화「성난황소」(Raging Bull)의 주인공 제이크·라모타씨가 이책의 작자 조셉·카테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카테씨는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전 세계권투 미들급 챔피언 라모타가 영화에서 얻는 수익금중 일부를 작자에게돌려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만달러의 손해배상을청구한 작가 카테씨는 68년9월에 영화로 얻는 수익금중 5%를 작가에게 주기로 했으나 "라모타는 한푼도 주지않을 뿐더러 영화에서 얻는 수익금 액수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비난자 증가

국민 67%가 경제정책에 실망

캐네디안 3명중 2명꼴인 67%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갤럽여론 조사에서 밝혀졌다.

응답자의 18%는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대답했고, 15%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5년전 같은조사에서의정부비난자는 55%였고, 그후 꾸준히 늘어나 금년1월에는 61%에 달했다. 비난자는 지난 6개월간 급격히증가, 지난 5년간 증가분과맞먹는 6%의 캐나디안이 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것이다.

서부(B·C 제외)캐네디안들의 비난도는 훨씬높아 77%에 달하고, 온타리오주민들은 72%, 퀘벡주는56%만이 불평했다.

동조사에서 물은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문: "당신은 현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결과 (최근 5년간의 결과와 각 지역별 조사)(%)

	옳다	틀렸다	모른다
81·7월	18	67	15
81·1월	25	61	14
79년	27	62	11
78년	27	59	14
77년	28	54	18
76년	30	55	15
지역별(현재)			
대서양주	15	65	19
퀘벡주	27	56	18
온타리오	15	72	13
서부주	12	77	11
B·C주	20	68	12

(서부주는 B·C·제외)

불법체류자서 돈 받아

이민관 매수하다 철창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얻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기범이 1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덴포드에 사는 안토니오·갭소모로스(41)는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이것이 불법인줄은 몰랐다"고 변명했다.

시드니·다이아몬드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불법체류 그리스인들이 영주권을 합법적 경로를 통해서는 얻을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 하면서도 돈을 받은것은 옳지않다고 말했다.

갭소모로스는 6명의 불법체류 그리스인 들로부터 9,100달러를 받은후 이민관을 매수, 영주권을 받아내려 했다.

이민관은 이들 불법체류인들을 즉각 체포, 추방시켰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q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90, 월$8.00

SECOND CLASS MAIL NP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KIM'S미용실

●정확한 헤어·컬

●우아한 퍼머먼트

●감각적인 컬팅

8월15일부터 1주일간은 내부를 수리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중 손님들에게 보다나은 써비스를 위해, 미국 헐리우드에서 열리는 퍼머먼트및 헤어·컬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오니 앞으로 더욱 저희 미용실을 애용해 주십시요.

☎532-7094

영업시간 : 오전9시~오후8시

(화, 일요일은 문 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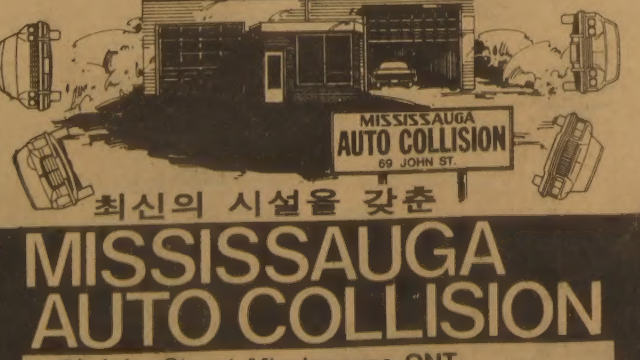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EP 3 1981

社說 이민증가운동

우리가 잘 살 길은 이민증가에 …

이민자수는 많을수록 좋다.

캐나다 전국에 한인계 인구가 적어도 10만은 되어야 집단으로서 말발이 서는 것이다.

말발이 서는 것도 문제려니와 교포상대 교민사업체가 굿굿하게 자랄 수 있을 만큼 이민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같은 수준에서도 일부 업종은 크게 자라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포의 절대수가 모자람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때로는 이민집단대 집단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니, 그런 경우 아무리 우수민족이라도 숫적으로 월등히 열세(劣勢)여서는 상대가 될 수 없다.

한 예로 수십만의 인구를 가진 이탈리아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계, 폴투 갈계, 그리스계, 중국계등은 그 인구수의 우세를 가지고 대정부 협상등 여러면에서 자기민족에게 유리한 고지를 언질(言質) 받기도 하고, 혜택을 스스로 구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캐나다 전국을 통틀어 3~4만명에 불과한 우리같은 소수집단 으로서는 별로 힘이 되지 못한다 하겠다. 우리가 그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고차원의 정신유산과 자랑다운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우수민족이며 개인적으로 남을 앞지른 두뇌와 능력이 있다해도 집단대 집단의 숫적 입장에서는 결코 대등한 대우나 협상 성립을 기대하기가 극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땅에서 우리 민족이 뭉쳐진 힘을 사회적으로 과시해 정부당국은 물론 일반의 관심을 모은 것은 작년가을, 비운의 흉탄에 간 고 이봉재씨 사건때가 그 대표적 사례(事例)였다 하겠다.

대내적으로는 오는 광복절 캐나다 한인체육대회가 전국 한인들의 친목 단합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타민족들이나 외부매스컴 등에 반영되어, 코리언 선양의 값진 기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이상 열거한 여러 이유에서 이땅의 우리 겨레수는 부쩍 부쩍 늘어야 한다. 다행히 모국정부는 국력의 해외연장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국민들의 해외진출 제한을 대폭 완화했으며, 오히려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은 매우 다행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남은 문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측에 달려있다. 캐나다는 최근 수년래 이민의 문을 대폭 줄이기는 하였으나 친족초청, 투자이민, 고용이민등의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며, 작년도 위니펙의 한국봉재사 집단이민에 이어 올가을내에 다시 대규모 재봉사들이 위니펙에 도착할 것으로 보아, 잘만 뚫으면 개별, 또는 집단적 이민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파거에도 본란에서 언급했듯이 오는 9월21일 트루도 수상의 공식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질 양국정상회담때 캔두원자로등 캐나다 산품구입 대응조건으로 전대통령으로서는 한국민의 다수 캐나다 이민요청등유리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참조<캐너더뉴스>81. 3. 28사설)모국교포들을 이땅에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들여 교포인구수를 늘리는 방법의 하나로 크고 작은 교포기업에서 고용이민의 길을 시도하는 방안이 있겠고, 결혼적령기 남녀가 배우자를 모국에서 물색해 초청하는 것도 교포인구 증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일반교민들도 이민수 증가에 비상한 관심을 품고 그 기회를 살리는데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재롱동이 영·셸리는 잔디밭 스프링쿨러에서 나오는 물을 강아지와 같이 핥아 먹는다. 마시는 물보다 흘리는 물이 더 많을 듯. 30일 텍사스주 달라스의 기온은 30도를 훨씬 넘었다(토론토 다운타운은 최고 27도).

고정간첩 5명 체포

6번 남북 왕래, 24년간 암약

(서울31일=연합)한국국가안전기획부(전 중앙정보부)는 지난 24년간 암약해오던 북한 고정간첩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박용준(60)씨는 6·25때 월북, 북한 노동당원이 되고, 간첩교육을 받은뒤 남한으로 잠입하여 두아들, 부인, 사위 등 4명을 포섭했다.

이들은 전남 진도를 근거, 암약해 왔다.

주범 박은 76년까지 6번이나 남북을 왕래했고 장남 박동은을 월북대동, 간첩교육을 시켰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최덕신씨는 매수됐는가?

북한 마구 찬양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난 6월22~7월 18일 북한을방문, 김일성과 면담하고 지난16일 부주석겸 평화통일위원장 김일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최덕신(미국거주) 전 외무장관의 북한체류중 발언요지를 아래와같이 발표했다.

한국 육군장성출신인 최씨는 토론토의 모모 인사들과 접촉이 많은것으로알려졌다.

이번 그의 북한방문은이미 북한을 다녀온 C씨 의 주선이었고, 북한 측으로서는 큰 정치선전자료를 얻은 셈이라고 영사관측은밝혔다.

(1) 북한사회 찬양부분—

●북조선은남쪽에 북조선을 노리는 세력들이 그대로존재하고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상낙원이다.

●천도교의 목적은 인간사회에, 지상천국을 만들자는 것인데, 북반부를 방문, 지상의 천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상「조국평화통일안」연설등)

(2) 김일성 지도자상 부각부분—

●김일성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 세계적인 영도자이며 이남에서는 민족을 위한영도자가 나올수 없으므로김일성을 민족의 영도자로받들어 나가야 한다.

●김일성은 이 지상에서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철학가, 걸출한 사상가, 실천가로서 북한의 수령일뿐 아니라, 남한민중들의 수령이며, 인류의 위대한 영도자이다.

●김일성은 항일전에 나와 동참하여 가장 큰 공훈을 세웠다. (이상 도착·출국 성명등)

(3) 고려연방안 찬양부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시대와 민족의절박한 요구로서 이는 조국통일을 위한 빈틈없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 현실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며, 우선 이북과 해외교포가 참가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해야 함.

●통일민족대회는 김대중씨가 필히 참석해야하며, 남반부 각계인사의 참석이 어려우면 우선 북한, 해외 각계인사간 대화를 먼저제3국에서 하고, 다음 평양에서 개최함이 좋음. (이상 김일·최덕신 회담등)

(4) 대한민국 비난부분—

●현 한국정부는 통일을위한 대화에 남측대표자격이 없으며, 남한의 「상호방문」제의는 남조선 인민들의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내외 여론을 기만키 위한 정치적 모략임(김일·최덕신회담등)

(5) 6·25 전쟁—

●미군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다. (조국해방전승리기념관 참관시)

(6) 김정일 후계부문—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한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출국성명등)

(7) 대미관계 부문—

●미국은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하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위한 협상에 하루빨리응해야하고, 남조선은 이에참가자격이 없으나 휴전협전 조인때와 같이 옵저버로참가시킬수 있을것으로 본다. (이상 김일·최덕신회담등)

◇최덕신씨

교민동정

◆고종옥(신부,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지난 6일부터 3주간의 휴가를 이용, 몬트리얼의 수도원에 묵으며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서전적 소설 제4부작 〈저세상의 이방인〉원고 반쫌을 집필하고 28일 귀임했다.

고신부는 과거 〈 사랑의 지도〉(제1부작·1965년 초판)을 비롯, 〈예수없는 십자가〉(불어판 68년, 한글판 77년), 〈이세상의 이방인〉(78년)의 3권 저서및 수상집〈고향에 못갈지라도〉(81년)를 냈다.

◆여동원(문협회원)=1년간의 에드몬톤 생활을 마치고, 다시 토론토로 이사와서 지난 28일 미시사가에 이삿짐을 풀었다. 여씨는 에드몬톤에서 가게를경영했었다.

◆임동철=부인 설동란씨와 함께 미시사가의 유일한 한국 식품점 한밭식품을 경영하는 임씨는 2주전 주택을 구입, 이전했다. 딕시×번핸톱 부근에 있는 새집 전화는 625-1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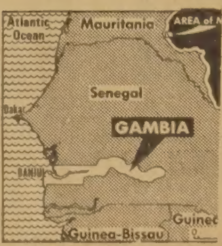
90년대 북한군사력 능가

미국서 한국에 A-10기 증파

(서울31일=연합)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존·위캄대장은 30일 미국은 A-10전폭기 중대를 한국에증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 공군력의 증강은 현재 남한측에 불리한 남 북한 군사력 균형에 대처한 것이다. 위컴대장은 현재의 남북군사력은 북한에 뒤지지만 남한은 무기생산능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90년대에는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할 것이라고덧붙였다.

「감비안」정부 전복 찰스 결혼식 후유증



(다카)온 세계가 들뜬찰스황태자의 결혼식은 한정치인의 불행을 몰고왔다.

이곳에서 청취된 서부아프리카의 캄비안 래디오에 의하면 29일 캄비안군내부에서 구테타가 일어나 다우다·자와라 정부를 전복했다.

자와라 감비안 대통령은 이때 황태자 결혼식에참석, 런던에 머무르고 있었다.

자와라 대통령은 감비아가 65년 영국으로 독립한 이래 나라를 통치해 왔다.

동 방송에 의하면 야당지도자 쿡리·산양이 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자와라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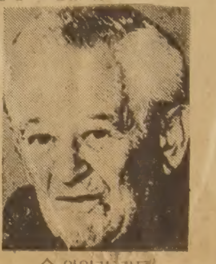
영화계의 거성 와일러감독 별세

영화「벤허」의 명장 윌리암·와일러 감독이 28일 로스엔젤레스 비버리·힐스의 가택에서 심장마비로 79세의 생애를 마쳤다.

와일러 감독은 아카데미 감독상을 3번 탔으며, 13번이나 수상후보에 올랐었다. 와일러 감독은 「벤허」, 「폭풍의 언덕」, 「우리생애 최고의 해」, 「화니걸」등 수많은 명화를 남겼다.

세계영화사상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했던 「사운드·오브·뮤직」도 감독한 와일러 감독은 애초 이작품을 뮤직칼로 만드는것에 반대했었다.

와일러의 오랜 친구로서 「벤허」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찰톤·헤스톤은 "아마지금이 바로 윌리(와일러 감독의 애칭)가 루비치 감독 장례식에서 말했던 "No More Lubitsch. Worse, No more Lubitsch movies"를 다시써야될 것이다"라고와일러 감독을 보내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와일러감독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㉟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즉 정부관리들이 이덴 엘델리족의 생존자들에게 보존의 수단을 배워주기 위해서파견되었다.

이 사람들은 이 보존이란 생전 들어보지못한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자기들의 움막에 돌아와서는백인들이 어떻게 남의땅을침범해서 양심의 가책이나절제없이 이동하는 사슴을죽였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또한 사슴은 이덴사람들의 것이고, 지난 수없는 세월동안 다만 자기들에게만속해 있었다는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바렌주변에서 사냥하던 젊은백인이쓴 일기책의 일부를 갖고있다. 일기는 매우 꼼꼼하게써서 매일의 일과를 모두 기록했다.

1939년가을 사슴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 사람의 사냥구역으로 왔을때 그가 겨울에 먹고 또 개먹이와 덫에쓸 미끼용으로 사슴을 잡았다.

미끼용으로 죽인 사슴은 그의구역 전역에 널려있었고 죽어넘어진 그자리에내버려 두었다.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묻어놓지는 않았다. 그대신 짐승들이 와서먹고 남을만큼잔뜩 잡아놔서 언제나 충분한 미끼가 남아있었다.

내가 갖고있는 그의일기는 다만 5주일 분 뿐이었는데 그 기간동안 267마리의 사슴을 잡았고 이 사냥꾼은 그가 사슴을 죽이는 것을 그의목적을 위해서보존한다고 생각했다.

이덴엘델리 인디언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도우려고 갔던 정부관리들의 진정한 의미의 "보존"을 받아들이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파멸시키지 않으려는 시도가 말로만 그쳤다.

1900년에는 거의 2000명에 달하던 이덴엘델리 인디언은 현재 불과 몇백명밖에 남지않았고 정부의좋은 충고에 의해서 어리석은 백인들로부터 보호를받게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대로두면 몇년후에는 더이상 그런충고도 필요없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필요한것을 제공해 줘야할 관리들을 더이상 당황하게하지도 않게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카리브(사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온 건설적인것을 말하지 않고서야 내자신 공정하다고할수없다.

사슴을 잡아먹는 진정한 동물은 인간의 역사중에가장 오래된 희생물인 늑대이다.

백인사냥꾼 들이나 덫을놓는사람들 혹은 스포츠사냥꾼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로는 사슴떼의 현저한감소가 피에굶주려 치칠줄모르는 북극의 힘 늑대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해에 이 늑대들이 수천마리의 사슴을 잡아먹는다며, 사냥꾼들은 자기네들이 한사람당 기껏해야 500마리 이상밖에는 잡지않는다고 열을올린다. 물론 그 사람들은 증거가 없지만누가 늑대에게 증거가필요하단 말인가?

이 사람들의 주장이 커지고 효과가 있었다.

늑대에 대한 이면에는실질적인 과오가 일반대중의 견해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

정부는 이들 여론에 합세하여 그것도 즐거히 받아들여 잡은늑대 한마리당 25달러의 관대한 상을 주었다.

정부가 적극적이었지만 만일 대중이 불행하게도그 진상을 알아차렸다면 대중의 관심은 다시 잠잠해 졌을것이다.

늑대여 울부짖어라 인간의 좋은양심이여 하고, 사슴이 있었기 때문에 늑대가 있었고, 당신들 백인들이 오기전 까지는 늑대나 사람이나 사슴이 상호조절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먹는다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을지 모른다.

늑대여 울부짖어라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못한다고, 늑대는 대답을 못한다. 사슴을 먹고사는 마지막 생존자들도 대답을 할수가없다. 사슴 자신들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봄철이되면 초조한 암사슴들이 큰 떼를지어 북쪽을 향하여 이동한다. 그들은 아직도 장하다.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파멸에대한 이야기는 상식을 벗어나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한번 지나간 길만따라 걷는다.

꽁꽁 얼어붙은 평원저쪽에 이할미우트 인디언은지붕이 낮은 둥근 얼음집 속에서 굶주림을 참으며 기다리고 있다.

남아있는 사슴떼들이 그들의 캠프주위를 통과할지 또는 멀리 수백마일 밖으로 지나갈지 모를 때에는 공포에떨며 굶주린 그들에게 희망이 없이 그저 죽어가고 있다.

숲속으로 두개의 호수가 연결되는 좁은 수로에는사슴의뼈가 수면위 까지 높이 높이 쌓이게 되면 바렌의 얼어붙은 강뚝을따라인간들의 새로운 돌 무덤들이 몰아치는 눈보라속에늪이 솟아있다.

VI. 작은 언덕밑

봄이 오는것 같더니 곧이어 여름철이 와서 오—테 레이크로 올라가 사슴을먹고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기에 적합한 계절이 되었다. 프란쯔에게 나를데리고 가주도록 주선을했고, 한스와 아이들은 윈디베이에 남아서 개들을 먹이고 캠프를 돌보기로 했다. 프란쯔와 나는 북쪽으로 향한 여행을 서두르면서 나는 흥분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이할미우트 인디언들을 그렇게도 만나보고 싶었지만 프란쯔한테서 그들의생활에 대하여 대충 듣고보니 서로 얼굴을 마주대한다는것이 불안해 지기도했다. 만일 그들이 나와 피부색이같은 백인들 때문에 비참해졌다고 원망 하면서 내가 나타나면 발도안하고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들이 나를 집으로 접대 해준다 해도 내자신의 반응이 그들을 화나게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역시 불안해져옴은 어쩔수가 없었다. 내자신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오직 굶주림만 경험한 사람들과 지내야 된다는 생각과 멸종상태에 놓여있는 이들, 파멸되어가는 사람들을 내눈으로 직접 보게된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내몸 속으로 전율해오는 것이었다. (계속)

광고는
좋은 뉴스입니다.

광고는 메이커로 하여금
소비자를 위해 경쟁하게 합니다.
광고는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도록 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경쟁은
기술혁신을 낳게 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옵니다.
민주복지사회는 곧
광고가 좋은 뉴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S LTD

본지 구독자에게 알림

— 우편파업 종료후 배달에 대해 —

본사는 장기간 계속되는 우편파업으로 인해 한국일보를 독자여러분에게 우송해 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파업의 조속한 종식을 고대하고 있읍니다.

본사는 우편국이 다시 문을 여는 날 그간 우송 못했던 신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본사는
그간 신문마다 주소를 찍어 두는등 재발송에 만전을 기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편업무가 재개되더라도 우편국이 그간밀린 우편물을 처리하려면 약1개월은 걸릴 것이므로 2종우편물인 신문의 경우 배달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신문날자 순서대로 배달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읍니다.

즉 파업이 해제되었다해서 당분간은 신문이 순서대로 잘 배달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께서는 주지하시고 이해와 인내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일보사 드림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教育稅 내년부터 5년간 徵收

利子·配當所得金額에 5%

酒稅와 담배값에도 10%씩

釜山 光州등 6大都市

財産稅의 50%부가

정부는 교육세를 신설, 내년부터 86년까지 5년간 時限附로 연평균 3천억원씩을 징수할 계획이다. 28일 재무부가 마련한 교육세신설방안에 따르면 교육세는 國稅및 地方稅에 附加형태로 적용하는데 과세대상및 부가율은 ▲이자및 배당소득액에 5% ▲酒稅(막걸리 소주 약주는 제외)에 10% ▲담배(3백원짜리이상) 값에 10%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등 6대도시에 한해 재산세에 50%를 부과하게된다. 81년을 기준으로한 교육세징수규모는 ▲이자및 배당소득에서 8백10억원 ▲담배 7백80억원 ▲재산세 5백억원 ▲酒稅에서 3백20억원등 2천4백10억원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2천5백억원한도내에서 징수하고 매년 물가상승등에 따른 외형증가로 연평균 3천억원씩을 걷게된다.

★관련기사2·5면

해마다 3千億씩 1兆5千億

재무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5차5개년계획기간중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총4조5천6백59억원에 이르고있으나 현행 재정형편으로는 3조3백79억원밖에 추가조달할수없어 나머지 1조5천2백80억원은 교육세로 조달키로한것이다.

교육세로 마련되는 재원은 전액 교육시설투자에만 쓰도록하며 초·중등교원의 증원과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은 수업료및 육성회비조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세가 신설됨에따라 내년부터 이자와 배당소득세는 15%(주민세 방위세포함 16·75%)로 오르게되며 담배값및 술값이 조정되게된다. 담배값은 은하수와 한산도가 3백원에서 3백30원, 솔 가 태양 거북선이 4백50원에서 5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술값은 공장도가격이 ▲맥주(4홉)가 1병당 5백91원51전에서 6백29원58전으로 5·0% ▲청주(1되)가 3천3백5원에서 3천4백60원30전으로 4·6% ▲위스키 베리나인 골드가 1만4천7백89원57전에서 1만5천6백55원36전으로 5·8% ▲고량주(2백50㎖)가 5백66원65전에서 5백92원29전으로 4·6% ▲慶州법주(9백㎖)가 4천1백85원13전에서 4천3백67원9전으로 4·3% ▲마주앙(7백㎖)이 2천2백74원97전에서 2천3백19원58전으로 1·9%가 각각 오르게된다.

한편 이같은 교육환경개선작업이 끝나면 ▲국민학교 학급정원은 65명에서 55명, 1백7학급의 過大學校는 70개 학급, 2부제수업을 4학년에서 3학년까지로 ▲중고교 학급정원은 70~60명에서 60~55명선으로 줄어든다. 또 국립대학 졸업정원은 현행 12만8천명에서 24만6천명으로 늘어나고 지방대학은 문교부시설기준의 80%를 달성하게된다.

또 중학교 무상교육은 83년까지 20%, 86년까지는 30%를 실시하게된다. 교원처우에 있어서도 교직수당이 현재 월3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초·중·고교 기준호봉격차가 해소된다. 유아교육의 기반도 확대되어 유치원입원율이 현재 15%서 50%로 높아지며 초·중등교원은 연평균 8천5백명이 충원되게된다.

財産稅稅負擔比較

(시가 : 백만원·세액 : 만원)

구분				시가 실시가	시가 내무부표준액	비율(%)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담 계	재산세	방위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교육세부가시 추가세액	합계
단독주택	강성동내구동	대지50평 건물20평	계	23	9·9	43	5·8	3·0	0·6	2·0	0·2	1·5	7·3
			토지	15	6·0	40	3·4	1·8	0·4	1·2		0·9	4·3
			건물	8	3·9	49	2·4	1·2	0·2	0·8	0·2	0·6	3·0
아파트	여의도 미성아파트	28평	계	42	10·3	25	6·3	3·2	0·6	2·0	0·5	1·6	7·9
			토지	14	3·2	23	1·8	1·0	0·2	0·6		0·5	2·3
			건물	28	7·1	25	4·5	2·2	0·4	1·4	0·5	1·1	5·6
		42평	계	63	20·3	32	15·1	8·4	1·6	4·1	1·0	4·2	19·3
			토지	23	7·3	32	4·1	2·2	0·4	1·5		1·1	5·2
			건물	40	13·1	33	11·0	6·2	1·2	2·6	1·0	3·1	14·1
빌딩	대우빌딩		계	79,100	18,743	24	15,702	5,598	1,155	3,849	5,100	2,799	18,501
			토지	12,500	2,661	21	1,642	798	195	649		399	2,041
			건물	66,600	16,082	24	14,060	4,800	960	3,200	5,100	2,400	16,460

주) 1) 81·1·1기준 2) 상단 : 실시가기준 하단 : 시가표준액기준

◇教育稅징수내용

(單位 : 81年基準 : 億원)

區分	對象	税率	税收効果	備考
國稅	利子配當所得金額	5%	810	
	酒稅	10	320	탁·약주, 소주제외
	담배價額(300원以上)	10	780	
	小計		1,910	
地方稅	財産稅	50%	500	大都市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合計			2,410	

育成會費 50%인상

敎育稅만으로 부족、中學이상에

정부는 교육세만으로 교육재정조달이 부족함에따라 중학생이상의 학부모에대해 육성회비를 50% 인상할방침이다.

이렇게될경우 전국적으로 1천5백30억원 (6대도시만은 1천1백60억원)이 걷힌다는것.

현재 육성회비는 중학생이 월2천2백20원、고등학생3천원、대학생 2만2천원(국립은 1만7천원)이다.

財務委간담회 취소

국회財務委는 28일 간담회를 갖고 財務部로부터 教育稅신설에 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民韓黨소속 의원들이 不參할뜻을 보여 이를 취소했다.

民韓黨은 財務委의 간담회 참석여부를 28일 黨務회의에서 논의한끝에 民正黨은 이미 재무부로부터 교육세 신설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기때문에 이날 간담회는 취소됐다.

過密해소·教員처우에 集中

文教部 教育稅 活用방안

문교부는 재무부가 발표한 교육세 신설에따라 확보되는 교육재원은 주로 초·중·고교의 과밀학급완화및 과대규모학교분리、2부제 수업해소등을위한 교육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문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86년까지의 제5차경제사회개발 계획중에 교육여건 개선을위해 투자될 총재원은 4조5천6백59억원으로 이가운데 교육시설 투자액이 3조8백6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시설투자비 3조8백68억원중 1조5천5백88억원은 정부의 현재정규모중에서 부담하고 부족한 1조5천2백80억원을 교육세로 충당한다는것.

그러나 과밀학급과 2부제수업해소、과대규모 학교분리등은 당초계획보다는 크게 후퇴할것같다.

교육세가 신설돼도 대도시 학교의적정규모로 알려진 36학급학교현、시설、교구、교원이 이상적으로 갖추어진 환경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게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것.

문교부는 당초 오는 86년까지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현재의 국교65명、중학70명、고교60명에서 모두 50명으로줄이고 국교의 2부제수업을 완전해소할 계획이었으나 총소요재원중 5천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학급당인원을 국교55、중학60、고교55명으로 후퇴한 선에서 재조정했으며 2부제수업해소도 3학년까지로 계획을 변경했다.

문교부가 교육세신설과 관련하여 발표한 전국각급학교의 과밀학급과 2부제수업실태및 5차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중의 주요투자계획등은 다음과 같다.

과밀학급

▲국민학교=전국 11만3천5백56학급중 50명이상을 수용하는 학급이 4만7천7백20학급이며 여기에 수용된 총학생수는 2백97만2천8백명으로 전체학생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위해 모두 6천3백44억원을 투입、4백74개학교를 신설하고 1만7천2백58개교실을 신축、대도시의 학급당 평균인원을 65명에서 55명선까지 낮춘다.

▲중학교=전체3만9천4학급중 61명이상을 수용하고있는 학급이 3만1천9백학급이며 이에 수용된 학생수는 2백15만2천5백명으로 전체학생의 84%를 차지하고있다. 모두 6천8백24억원을 투입、8천9백88개교실을 신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60명으로 완화한다.

▲고등학교=전국 3만1백40학급중 56명이상을 수용하는 학급이 2만6천2백학급이며 이곳에 수용된 학생수는 1백58만1천4백명으로 총학생의 89%를 차지하고있다. 모두 4천1백90억원을 투자、3백83개 학교를 신설하고 8천39개교실을 신축、학급당인원수를 평균 55명으로 낮춘다.

2부제수업

▲국민학교=현재 3백63개학급 1만... 이 2부제수업을 하고있는데 1차로 3학년이상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위해 6백72억원을 투입、91개소규모학교를 신설하고 1천6백43개 교실을 신축한다.

이와함께 대도시의 과대규모학교를 분리、학교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위해 71학급이상 2백4개교를 36학급규모로 분리시킨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8백72억원으로 2백69개학교를 신설하고 1만2천2백22개 교실을 신축한다.

日、대규모經協에 難色

日紙보도 "韓國과 同盟 아니다"

外務省수뇌 安保강조 안좋아

【東京28日=聯】일본외무성 수뇌는 27일 『한일양국에는 안전보장조약이 없고 따라서 동맹관계가 아니다』고 지적、한국정부가 요청하는 일본방위의 방파제로서의 경제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신문들이 28일 일제히 보도한바에 의하면 이 수뇌는 한국정부가 ... 로 전해진 거액의 경제협력과 관련、『안전보장문제를 내세워 의무라든가 권리라는 입장을 강조한다면 한일양국에게 좋지않다』고 말해 대한경제협력선이 지금까지처럼 민생안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것이라는 일본측 기본방침을 시사했다.

이수뇌는 또 『8월의 한일외상회담에서 경제협력문제가 중심의제』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재정형편상 상상을 벗어나는 정도의 대규모차관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마이니찌(每日)신문은 이같은 표면적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對韓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기위한 준비작업이 이미 외무성을중심으로 시작됐다고 보도하면서 외무성수뇌의 이날 발언은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기전 한국이 너무 「방위경비」라는 측면을 강조할경우 일본정부가 궁지에 몰린다는 점을 전달하기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마이니찌신문은 또 외무성수뇌가 한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최근 경제가부진한 상태임을들어 엔차관을 상당히 증액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韓日간 信頼회복"

스노베日外務省 사무차관 첫會見

【東京28日=宋孝彬특파원】스노베(須之部) 일본외무성 사무차관은 28일하오 취임첫 회견에서 『지금까지 韓日간에 어려운일이 많았으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회복으로 우호증진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노베차관은 또 한일경제협력문제가 갑작스럽게 대두되고있고 아직 한국측에서정식으로 經協내용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신문에서 크게 보도되고있는데 대해 『취임한지 얼마안돼 어떤경로로 對韓經協문제가 보도되고 있는지 잘알수없으나 한국에 4년동안 근무한경험을 살려 韓日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노베차관은 對美、對蘇외교의 방향전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이 바뀌었다해서 외교의 실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외교의 일관성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수 있다』고 답변했다.

民韓 月末議總소집

임시國會流産싸고 黨對策 논의

民韓黨은 28일상오 柳致松총재주재로 확대간부회의와 黨務會議를 잇달아열고 제108회임시국회流産에따른 黨의대책등을 논의하기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키로했다.

이에따라 民韓黨은 오는31일께 議員總會를 열고 소속의원들의 國政監査등에 앞서 임시국회流産경위와 귀향활동지침등을 시달할 방침이다.

당무회의는 또 黨후원회內規 起草소위위원으로 辛相佑사무총장、金銓圭훈련원장、吳弘錫의원을 선임하는한편 일부 黨規를 고쳐 각지구당에 15명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도록하고 사무처기획실에 기획위원 약간명을 둘수있도록했다.

한편 金珍栽대변인은 黨務會議의 결정에따라 이날성명을 발표 『民韓黨은 國政전반에대한 문제를 국회본회의에서 다루기위해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與黨이 先常任委를 내세워 국회소집자체를 무산시키고만것은 의회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것』이라고 말하고 『이와같은 상황에서 모든 院內대책을 黨무에게일임、강력한 對與정쟁을 벌이는한편 소속의원들의 일체감조성을위해 의원총회를 곧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民正黨 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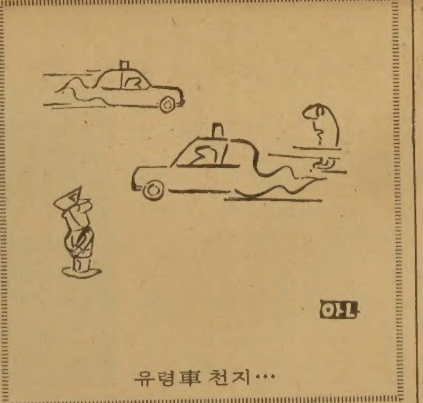
年末까지 20億募金목표로 내달중

民正黨은 黨운영에따른 財政難을 해결하기위해 政治資金法에따라 오는 8월중에 회원·천여명규모로 독자적인 後援會구성、금년말까지 年間 法定限度額인 20억원을 募金키로 방침을 세웠다.

後援會는 後援會제도가 생긴후 주요 정당들이 회원확보를 구상해 왔으나 民正黨은 이제처음으로 이를 조직화하고 黨의 재정적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後援會를 통한 정치자금모금은 그동안 民正黨이 노력해 왔는데 民正黨이 처음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셈이다. 民正黨은 他政黨의 입장을고려하고 또 보조를맞추기위해 지금까지 後援會구성을 미뤄왔으나 날로加重되는 財政압박때문에 단독으로 후원회를 구성키로했다』고 밝히고 『8월중에 구성되는대로 중앙선관위에 登錄、稼動에들어가는 後援會의 회원범위와 운영및募金방법등은 이달말께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民正黨은 지난5월초부터 2천여명의 기업인들을 後援會회원후보로 꼽고 소유기업의 財務구조와 성실도등 운영실태에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 이중大企業과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운영이 不實한 기업들은 제외한뒤 8월초부터 法的上限線인 1천명을회원으로 선정할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社會漫評
유령車 천지…

한국일보 무료배부 — 유편매 읽기 간종 —

地平線

영국민화를 보면 결혼에 얽힌 재미있는 애기가 있다. 어느날 한 시인이 산신령에게 결혼(matrimony)이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산울림이 곧 돌아왔다. 그 메아리는 matter-o-money 즉 돈이라고 했다. 결혼식이란 그 신분·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많이 들어가야 화려하고 장엄할지 모른다.

▼今世紀마지막 로열웨딩이라는 찰즈영국황태자의 결혼식이 오늘런던의 聖바오로성당에서 거행된다. 엘리자베드영국여왕은 「이번 결혼식준비에 절대로 돈을낭비하지말라」고당부하고있지만 모처럼의 경사에 영국은 온통 축제분위기에 들떠있다. 행사비용에 약1백15만달러(8억원)가 들고 전세계에 TV로 중계돼 5억인구가 구경한다. 결혼식 전날 하이드 파크에서 벌어진 불꽃놀이때엔 2톤의 폭약으로 1만2천여종의 불꽃모양을 수놓아 장관을 이뤘다.

▼식장인 성바오로성당입구부터 식단까지 깔릴 1백40m의 붉은융단은 며느리 다이애너·스펜서양을 맞는 엘리자베드여왕의 혼례비용 절약명령으로 재사용할수있게 특별고안까지했다고 한다. 결혼비용에서 제일많은건 경호비용4억원, 신혼여행비 1억3천만원, 퍼레이드 연도치장비 6천만원, 스피커등 편의시설비 1천만원, 케이크비용 1천3백만원등 총 8억원정도로 알려져있다.

▼왕실 케이스는 다르나 원래 영국일반풍습으로는 결혼비용은 모두 신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결혼식장에선 신부(bride)가 스타이고 신랑(bridegroom)은 머슴(groom) 취급을 받는다. 웨딩 케이크의 정식이름도 브라이드 케이크이고 그룸 케이크는 있어도 손바닥에 들어갈만큼 작아 누구눈에도 안뛴다. 결혼식날 인사도 신랑에겐 「축하한다」는 말을 쓰지만 신부에겐 「행복을 빈다」거나 「너무나도 예쁘군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통례다. 왜그러냐하면 예쁜신부를 찾아다녀 소원을 푼 신랑에겐 축하가 합당하지만 같은말을 예쁜신부에게 하면 실례가되기 때문이다.

▼70년전에 만든 사변이 유리로된마차에탄 신부 다이애너양의 모습을 오늘TV로보게됐지만 우리고유의 전통적 결혼식도 영국못지않게 근사했던것 같다. 紗帽·團領으로 차려입은 신랑이 백마나 駿馬를 타고 紗籠·雁夫·大傘·隨行·유모등의 순으로 신랑·신부집에 親迎가는 우리의옛 풍습도 언젠가는 再現되는날이 오지않을까 생각해본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5
은 : 온스당 US 8.5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시베리아·西歐에 天然가스管 부설

全長5천500km 百억弗

西獨民間銀 財政지원 합의

美側의 「盟邦 對蘇접근 우려」 일축

【본·聯合】 최상 최대규모의 동서무역거래인 시베리아·西歐천연가스管프로젝트가 미국의 심각한 우려표명에도 불구,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측과 그동안 협상을 벌여온 西獨민간은행들은 시베리아·西歐천연가스管건설을 재정지원키로 대체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금년중에 협정이 조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西獨은행들은 공사비1백억弗 프로젝트를 위해 소련에 50억마르크(약20억달러)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日本은행들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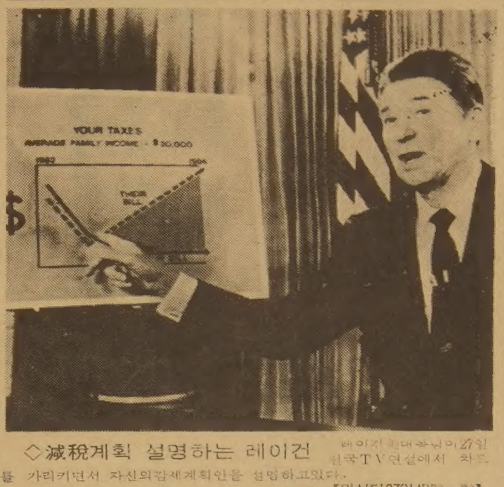
西獨관리들은 이같은 천연가스管건설이 西歐의 對蘇에너지依存度를 위험수준까지 증대시킬 것이라는 美國의 우려에도 불구, 차관협정이 브레즈네프 소련국가원수겸 공산당서기장이 금년말 본을 방문하기 전에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렸던 西方7개선진국경제정상회담에서 레이건美대통령은 슈미트 西獨수상에게 이 차관계획을 폐기토록 종용했었으나 거부당했다. 슈미트수상은 東西무역을 정치적架橋건설의 일환으로 보고있다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종용을 거부했는데 西獨관리들은 이 협정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침공으로 경직된 東西관계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西歐와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총연장 5천5백km에 이르는 鋼管으로 이뤄질 시베리아·西歐천연가스관은 서부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시작되어 우랄山脈을 가로질러 西歐의 각 가스저장소까지 뻗치게 되는데 총공사비는 약 1백2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美국무성 이스라엘機의 레바논偵察 武力공격은 아니다"

【워싱턴27日AP=聯合】 딘·피셔 미국무성대변인은 27일 이스라엘공군기들의 레바논 정찰비행은 엄격히 말해 무력공격행위가 아니므로 지난24일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피셔대변인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레바논지역에서의 군수품수송 역시 이번 휴전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親이스라엘 우익민병대 사드·하다드파의 요새에 대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공격이나 이 지역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공격은 명백한 휴전협정위반』이라고 말했다.



◇減稅계획 설명하는 레이건 레이건美대통령이 27일 전국TV연설에서 차트를 가리키면서 자신의감세계획안을 설명하고있다. 【워싱턴27일AP聯合=聯合】

減稅案 復興지름길

레이건, 表決앞두고 對국민弘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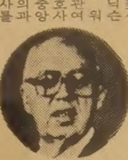
【워싱턴27日AP·聯合=聯合】 레이건미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3개년 25% 감세안이 미국경제부흥계획에 필요한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밤 자신의 감세안에 대한 하원의 중대한 표결을 2일앞두고 가진 전국TV연설에서 자신의 감세안이 막대한 연방정부지출삭감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민주당인사들이 제시한 대안은 인플레 경제현상을 가중시킬뿐 『정치적 장난』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안이 채택될경우 국민의 부담이 보다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局長 추문」 조사

美上院정보위 톰프슨변호사에 일임

【워싱턴27日聯合=聯合】 美상원정보위원회는 27일 닉슨 前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추문 조사에 관여했던 프레드·톰프슨변호사에게 윌리엄·케이시 중앙정보국(CIA)국장의 과거기업활동에 관한 조사를 지휘토록 위임했다. 톰프슨변호사는 공화당 법률고문으로 워터게이트추문을 조사하는데 관여, 명성을 얻었으며 금년초 헤이그국무장관인준 청문회때도 공화당의 특별법률고문으로 활약했다.



◇케이시 CIA局長

"뉴올리언즈 농경會社 파산 「휴겔任命」등은 CIA실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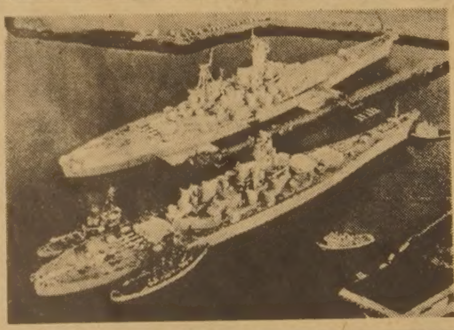
케이시국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배리·골드워터상원정보위원장은 케이시국장이 뉴올리언즈 농경회사를 파산시켰을뿐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휴겔씨를 CIA 대외공작담당부국장으로 임명, CIA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신랄히 비난하고 있다.

골드워터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케이시 국장이 뉴올리언즈회사에서 15만달러를 손해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가 75만달러를 사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현재 정보위원회가 이문제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찰스皇太子 결혼식 80분

오늘 상오11시 聖바오로성당서

【런던27日AP聯合=聯合】 찰즈영국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결혼식은 29일상오11시(한국시간하오7시) 런던의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거행된다. 로버트·룬시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하는 결혼식은 각국의 왕과 대통령등 3천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약80분간 계속되며 3개의 합창단과 3개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담당한다.



◇위용드러내는 뉴저지號 美國이 對蘇해군력강화를 위해 재취역시키기로 결정한 전함 뉴저지號(사진하단)가 27일 지난12년간 기항해온 브레머턴해군기지에서 위용을 드러내보이고있다. 사진상단에 전함 미주리號의 모습이 보인다. 【브레머턴(워싱턴州)27일=AP】

防衛費증강힘들어 日本

【東京27日UPI=聯合】 일본은 미국의 방위력증강압력에도 불구, 82년도방위예산을 7.5%증액키로한 당초의공약을 이행할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오오무라·죠오지(大村襄治)日방위청장관이 27일말했다.

比, 7人執行委구성 마르코스有故 承繼

【마닐라27日UPI=聯合】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부분개각을 단행한데 이어 유고시 자신을승계, 국가를 통치하게될 7인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4차정기『잠정국회』개원식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 구성된 7인집행위원회위원장에 세사르·비라타現수상겸 재무상을 임명했다고말했다.

멕시코旅客機 추락 44명死亡·21명負傷

【멕시코시티28日UPI=聯合】 승객66명을 태우고 몬테레이에서 북부국경도시 티후아나로 향하던 에어로·멕시코항공사소속 DC9국내선여객기가 28일 새벽5시30분(한국시간) 치와와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추락사고를 일으켜 승객44명이 사망하고 21명이부상당했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中共, 都給制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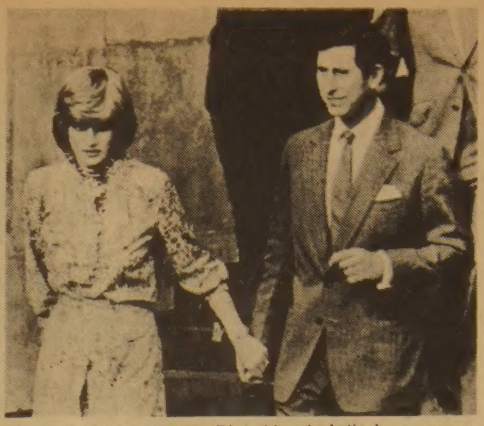
【홍콩27日=聯合】 중공당국은 최근 농촌에서 실시하고있는 「생산도급제」를 도시로 확대하여 일부국영기업체의 운영을 해당기업체의 직공개인이나 집단에 맡기는 「경영도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있다고 홍콩의 좌익조간신문 爭鳴日報가 27일 중공당기관지 人民日報와 中共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바호나르 現敎育相 이란新任首相 확실

【테헤란27日AP=聯合】 모하메드·알리·라자이수상이 이란회교공화국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당선이 확정됨으로써 공석이될 수상자리는 회교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의 측근이자 현교육상인 호자톨레슬람·모하메드·자바드·바호나르가 차지하게될것이 확실시되고있다고 집권IRP(회교공화당) 계신문들이 27일 보도했다.

오늘의 小史 <29일>

▲파리에 凱旋門세움 (1836)
▲獨 음악가 슈만 死去 (1856)
▲네덜란드 畵家고호 死去 (1890)
▲戰勝21國, 파리서국제평화회의 개최 (1946)
▲국제원자력기구 발족 (1957)
▲民·參議員 선거실시 (1960)
▲蘇·체코체르나 會談시작 (1968)



◇다정히 손잡은 찰스와 다이애너 29일 결혼식을 올리는 英國의 찰즈황태자와그의예비신부 다이애너·스펜서양이 27일 식장인 聖바오로 대성당에서 결혼식 예행연습에 참석한뒤 다정히 손을 잡고 성당문을 나서고있다. 【런던27일AP聯合=聯合】

◇엘女王과 담소하는 낸시女史 찰즈황태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英國에온美 대통령부인낸시여사가 찰즈황태자가 출전한 윈저에있는 한폴로 경기장에나와 같이온 엘리자베드 英國여왕과 담소를 나누고있다. 【윈저(英國)28일 AP聯合=聯合】

오늘 「世紀의 結婚式」

찰즈英皇太子·다이애너孃 華燭

聖바오로 聖堂에서 非公開로 예행연습

【런던27日聯合=聯合】 찰즈영국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은 「세기의 결혼식」을 이틀앞둔 27일 聖바오로성당에서 결혼식을 위한 최종 리허설을 가졌다. 이날 수천명의 군중들이 聖바오로성당연도를 꽉 메운가운데 다이애너·스펜서양은 승용차로 성당에 도착, 성당으로 올라갔으며 그보다 몇분늦게 찰즈황태자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활짝웃어보이며 성당계단을 올라가 다이애너양과 합류했다. 이들의 결혼식리허설과 결혼식을 위해 버킹검宮으로부터 聖바오로성당에 이르는 3.2km도로연변에는 수천명의 군중들이 텐트를치고 노숙을 하고있는데 이들의 리허설광경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버킹검宮 대변인은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의 약혼이 발표된이후 두사람이 약10만통의 편지와 5천점의 선물및 수많은 축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간의 보슬비내려 式場갈땐 맑아질듯

○…찰즈와 다이애너의 결혼일인 29일 아침에는 약간의 보슬비가 내릴지도 모르나 두사람이 말과 마차를 타고 결혼식장인 聖바오로성당으로 향할때쯤에는 맑게 갤 것이라고 런던기상센터가 예측.

웨일즈産 금덩이로 新婦결혼반지 製造

○…찰즈황태자가 다이애너양에게 끼워줄 결혼반지는 엘리자베드여왕을 포함, 영국왕실가족 4명의 결혼반지에 쓰여졌던 똑같은 웨일즈금덩이로 만든 것이다. 웨일즈금은 보통 금보다색깔이 약간 짙으며 영국에서만 채굴된다.

엘女王과 握手만 낸시女史 절안해

○…공사다망한 남편을 대신하여 찰즈황태자의 결혼식에 참석한 레이건美대통령부인 낸시여사는 양국고위층들의 숙의끝에 엘리자베드여왕에게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굽혀 절하지않고 악수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1백99m의 카피트 式끝난후 官公署로

○…다이애너양이 결혼식날 聖바오로성당에서 밟게될 1백99m길이의 붉은 카피트는 결혼식이 끝나는 날로 정부관공서들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이는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영국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것으로 이에따라 곳곳에 장식될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도 결혼식이 끝나는대로 다시 뽑아서 런던의 공원들에 다시 심어질것이다.

어제 리허설…위성중계도

55國 6억人口 TV 시청

泰占星家, "2년있으면 玉童子분만"

○…55개국 약 6억인구가 시청하게될 TV위성중계는 결혼식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착하기 위해 ...

다투는 일 없을것 英經濟 부흥온다

○…찰즈 영국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은 결혼후 두사람이 다투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

최근 人種폭동으로 觀光客줄어들듯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결혼을 계기로 관광수입을 올리려던 관광업계는 최근의 인종폭동 사태로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

다이애너 둘러리에 처칠경 손녀도끼어

○…다이애너양은 신부 들러리 5명을 거느리는데 이중에는 처칠경의 손녀도 끼어있다.

南阿共팀과 巡廻경기强行

뉴질랜드럭비協 데모등불구

【웰링턴27日UPI=聯合】 뉴질랜드럭비협회는 27일 南阿共팀에 반대하는 데모에도 불구하고 南阿共스프링복스팀과의 순회경기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反人種차별抗議땐 軍隊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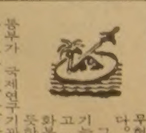
阿洲스포츠最高委선 경기取消촉구

인사이드

메아리

27일 제주도를 ... 2천년까지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당국의 발표는 ...

제주 특색



... 그래서 근자에는 문공부의 기능을 문화부와 공보처로 나누고 교통부의 관광국기능을 문화부산하로 두는 구상도 있는 것이다. ... 무형문화재는 문공부의 소관이 ... 제주도는 특징있는 초가토담집은 새마을 운동으로 거의 다 사라져 ...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9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3 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초 대 말 씀

삼가 아룁니다.
소생의 딸이 지난 5월30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8월4일 신랑과 함께 이곳에 도착케 되어 여러어른들을 모시고 조촐한 피로연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일 시 : 1981년 8월 8일 토요일
하오1시 정각
장 소 : 오리엔탈·팰레스
529 BLOOR ST. W.

8월8일은 가정형편상 휴업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하우스
장 순 채 근배

東海서 失踪 오징어잡이 영기號 被拉
蘇港에 船員11명억류

【東草=聯】 대화퇴어장에서 조업중 『정체를 알수없는 큰배가 접근해온다』는 무전보고를 끝으로 지난23일상오10시10분께 실종됐던 東草선적 오징어잡이어선 제8 0 1영기호(33·99톤·선장 朴壽伯·40)가 蘇聯 나호드카항에 억류되어있음이 28일 확인됐다.

東草지구해양경찰대는 이날 蘇聯 나호드카항만당국으로부터 한국의 영기호를 억류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어부11명이탄 영기호는 지난 18일 東草를 떠나 금룡호(34톤)·이길호(36톤)등 3척과 선단을구성, 대화퇴어장에서 오징어잡이를하다가 고기잡이가 신통치않자 23일상오10시10분께 조업해역을 9백49의5해구에서 9백58해구(북위39도45분 동경135도15분)로 이동하여 조업중 『정체를 알수없는 큰배가 접근해온다』는 무전보고를 끝으로 실종됐었다.

동해어로보호본부는 영기호의 소식이 끊기자 해경 경비정1척과 수산청지도선을 비롯, 대화퇴에 나가있는 80여척을 동원, 영기호의 수색작전을 폈었다.

金명수씨(강원東草市청호동)가 선주로된 영기호는 수협선원공제 2천4백만원, 선박공제 7백80만원에 가입돼있다.

◇어부명단(11명)

▲선장 朴壽伯(40·東草市靑鶴동3통2반) ▲기관장 金時鳳(26·東草시靑湖동18통5) ▲어부 李春植(69·〃靑湖동3통2반) 河益俊(53·〃5통4반) 金珠俊(48·〃8통3반) 李鍾南(34·〃4통4반) 尹龍九(21·〃9통2반) 趙斗鉉(24·〃6통3반) 金慶植(29·〃2통5반) 李亨根(42·〃靑陽동1통3반) 張海龍(24·〃1통8반)

코피값 3백원으로
釜山市 대부분茶房 자율화조치후

【釜山=聯】부산시내 대부분의 다방들이 가격인상 자율화조치에따라 28일부터 코피값을 3백원으로 올려받고 있다.

다방이 집결돼있는 釜山중구청 관내의경우 4백40개다방업소중 27일 하루에 3백여업소가 코피값을 종전 2백30원에서 3백원으로 30% 인상하겠다고 관할중구청에 신고한뒤 이날부터 인상된가격을 받았다.

또 일부 음악다방에서는 코피값을 50%나 오른 3백50원을 받겠다고 신고했다가 관할구청의 설득으로 보류하기도했다.

故李瑞求씨 데뷔代表作
「어머니의힘」 드라마化
KBS 일요극장 故人추모 特輯
30年代 심금울린 신파극 標本
자유戀愛사상 갈등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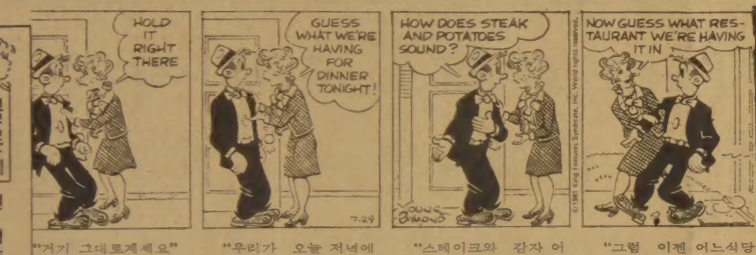
방송話題

지난 5월25일 타계한 「마지막 문안사람」李瑞求옹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이기도한 희곡「어머니의 힘」이 TV드라마로 제작 방영된다.

38년 발표된 「어머니의 힘」은 전형적인 신파극으로 다음해인 39년 東洋극장에서 「호화선」극단에의해 처음 무대에 올려져 세인의 가슴을 울린 작품。李씨가 충무작가로 활동하던 51년 釜山에서 다시 무대에 올렸는데 당시의 대본(李씨친필)을 KBS가 입수, 李瑞求선생추모특집으로 제작, 오는 2일「일요극장」(제1TV·하오8시~9시) 시간에 방송한다. 鄭鎭建각색, 金仁經연출. 趙美姬·張民虎·朴容堂이 출연한다.

「어머니의 힘」은 30년대 말 유행했던 신파극의 표본으로 은행두취의 외아들과 기생의 이루어질수없는 사랑을 그렸다.

주제는 자유연애 사상과 구시대의 마찰이라는 구태의연한 것이기도 하다。문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뛰쳐나가 결혼한 귀남 아들과 기생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집안에서 외면당하지만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고난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보고 마음을 돌려 용서해준다는 줄거리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나의 이력서 ⑥
윤치영
〈題字·윤 치 영〉

나의 幼年期시절엔 소학교가 하나 둘 생기면서 제도적인 초등교육기관이 胎動하고 있었다。그러나 그때만해도 書堂이 사실상의 초등교육기관구실을 했다.

이른바 士大夫나 양가집의 대부분 자제들은 書堂엘 다니거나 獨선생을 두고 공부를 했다。전통적인 한문교육이 그 내용이었다.

5、6살적, 나는 엄한 선생님한테서 千字文을 배우면서 첫 교육에 눈을 떴다.

아버지가 군수로 계시던 京畿道 安城에서였다。나를 가르쳤던 독선생님은 지금 新政黨총재로 있는 金甲洙전대법원장서리의 할아버지되시는 金亨培옹이다。그 선생님은 숙제(외는것)를 안해오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할경우 가차없이 회초리를들었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 한대도 안맞았다。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랐고 뒤에는 선생님의 아들이자 金甲洙씨의 부친인 金鍾根씨와 절친한 친구가 됐다.

7살 되던 때 牙山으로 가 공부를 했다。좀 컸으니 家風을 익히며 공부를 하라는 부모님의 배려에 의해서다。牙山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으신 고향이다.

초기 교육

書堂에 다니다 9세때 校洞학교入學
4학년때 韓日合邦…어른들 나라걱정

牙山에선 둘째형님의 장남으로 1년年上인 조카 尹潽善과 같이 공부했다。어릴적이라 삼촌의 체면이고 뭐고 이따금씩 싸움이도했지만 서로 거들어주며 열심히 공부했다。우리를 가르친 선생님은 柳基東이라는 엄한 漢學者였다.

그당시 書院 또는 書堂이란 성격상 요즘 말하는 「私立교육기관」이었다.

그런 서당이 開化의 바람과 新式교육의 등장으로 점차 위협을 받기 시작한것이 당시 상황이다。서당교육은 제도적인 신식교육으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적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퇴색해버릴 것만같던 書堂은 「韓日合邦」이후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合邦이듬해 전국에서 1만6천을 넘었던 서당 수는 己未3·1운동전엔 2만3천여개로 대폭늘어난다。이것은 日帝가 식민교육을 강화한데대한 반발의 표시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소학교는 1895년의 소학교令에 따라 세워지기 시작, 내가 소학교에 들어갈때쯤 전국엔 많은 학교가 세워졌다。서울에는 校洞、貞洞、齋洞、漢洞、莊洞등의 소학교가 비교적 초기에 세워졌다。그중 校洞학교는 대한제국에서 세운 최초의 소학교였다.

나는 9살때 官立漢城校洞학교(현재 서울 校洞국민학교)에 들어갔다.

그 당시는 主權을 거의대부분 일본에 빼앗긴채 亡國의 먹구름이 덮쳐오던 東亞의 風雲期였다.

어린 마음에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얘기가 귓전에 들려올때면 심상치않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했다。그런중에도 나라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을 단련하라는 집안어른들의 말씀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校洞학교에서는 역사、지리、산술、習字、圖畵、작문、체조등 갖가지 신식과목을 배웠다。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도덕사상과 동양哲理를 망각하지말라는 부모님 말씀에따라 名賢들의 귀중한 가르침을 많이 공부했다。「人義禮知」「溫故而知新」「男兒一言重千金」「一日三省」과 같은 말을 머리에 넣고다녔다.

校洞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야구도 배웠다。지금과같은 콘크리트식 건물이 아닌 舊韓末木造2층건물앞마당에서 친구들과 피물같은 글러브를 끼고 야구하던 기억이 새롭다.

친했던 입학동기생으로는 李忠默(吉在號씨장인·前漢城銀行長)이 생각난다。海章는 나보다 학교선배로 먼저졸업했다.

당시 우리집은 학교바로 건너편인 지금의 天道敎堂자리여서 학교가 파한뒤 점심이나저녁을 먹고도 학교로 다시가서 마음껏 뛰어놀았다。그때 학생들의 연령이나 옷차림들은 形形色色이었다.

이미 장가든 15~20여세짜리의 의젓한 새신랑이 있는가하면 나같은 애숭이도있었지만 우리는 나이를떠나 유쾌하게 같이 어울렸다.

1910년, 4학년때 쯤인가。여기저기서 悲嘆의 소리가 들렸다。安國洞집에선 어른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나라걱정을했다.

「韓日合邦」으로 나라가 망한것이다。어른과형님들의 한숨과 歎息소리를들으며 어린나이에 혼날자리서 일본놈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야겠다며 조그만주먹을 불끈쥐었다.

이해10월, 신임조선총독 데라우찌(寺內)가 新義州에서 거행되는 압록강철교준공식에 참석차 가던중 宣川역부근에서 누군가가 폭탄을던지려했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기독교와 교육계지도급인사들을 마구체포했다。武斷통치를위해 이땅의 지식계급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저들이 허무맹랑하게 造作한 이른바 「一○五人사건」이었다.

1912년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이열렸다。당시 開城에서 韓英書院을설립 교육을시키다 체포된 나의 從兄 尹致昊는 「비밀결사 新民會와 항일교육기관 大成학교의 長이되어 韓日合邦에 반항했고 조선총독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것이다。從兄의구속으로 집은 또다시 걱정으로 뒤숭숭했다.

◇1890年代의 書堂。코흘리개 學童들은 머리를길게딴채 千字文등을배웠다。

誠信女大生2명에
징역8월 宣告

서울형사지법朴東洌판사는 28일 지난5월 교내에서 불온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주동한 誠信여대 崔成姬(21·국어교육과3년) 林恩任(22·화학과4년)피고인등 학생2명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8월씩을 선고했다.

流星의 賦 <143>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㉙

송응개의 상소에 관해선 갖가지 부수된 얘기가 많은데 상촌시장(象村謚狀)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보인다.

—이때 송응개가 조회(朝會)를 마치고 나와 그 생질 신흠(申欽)앞에 이이에 대한 탄핵문을 꺼내 보였다。그리고 「네 의사는 어떠냐」고 물었다。신흠은 그 탄핵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말했다。「당세에 명망을 떨치고 있는 이이를 두고 장삼 입고 머리 깎은중운운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응개는 아무 말이 없고 여러 무리들이 떠들썩 했는데、신흠이 동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된 것은 이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의 사정을 짐작케 하는 한대목이다.

이때 사헌부의 대사헌 이기、집의 홍여순、장령 정숙남、지평 이경율、조인준등이 떠들고 나섰다.

『전일 병조판서 이이를 탄핵한 것은 그의 과실을 들어 규정(糾正)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그것을 미끼로 초야에서 온 성혼 같은 자까지 상소하여 우리들을 벌하라고 하니 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금은 기가 막혔다。영의정을 불러 『송응개와 허봉을 파직해서 내 쫓는 것이 어떨까』하고 의논했다.

『그들의 소위를 보면 파직이 마땅하지만 그래 놓으면 벌집을 쑤셔 놓은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우선 지방관(地方官)으로 내 보내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박순의 대답이었다.

임금이 특명을 내려 송응개를 장흥부사(長興府使)로、허봉을 창원부사(昌原府使)로 보내기로 했다。그러자 공격의 화살이 영의정 박순에게로 떨어졌다.

『영상 박순은 본래 보잘것 없는 그릇으로서 문필의 조그마한 재주로 행세하여、마음 씀이 사특하고 행실이 교활하여 지위 보존에 급급할 뿐 아니라 염치가 없는 자입니다。항상 심의겸과 더불어 심복을 맺고서 조정의 시책 조치와 인물의 승진을 한결 같이 의겸의 뜻대로 하여 국권을 마음대로 희롱한지가 오래 되었읍니다…』

하고 이이와 성혼과 사귀는것이 무슨 대죄(大罪)나 되는것처럼 양사의 이와같은 상소가 오른지 수일후、양사와 옥당이 박순의 죄 열한가지를 들어 연일 논계(論啓)했으나 임금은 단호、이에 귀를기울이지 않았다.

그러구러 태학생 유공진(大學生 柳拱進)등 4백62명이 이이를 변명하는 상소가 있었다。그내용인즉 「이이를 모함하려는 움직임은 극히 불순한 것이니 전하의 명찰(明察)로써 시비를 가려야할것」이란 주장이며 탄원이었다.

임금은 그상소를 보고

『이상소를보니 충성스럽고、곧고 격렬하다。너희들의 의기가 이와같으니 내가 어찌 국사를 근심할 까닭이 있느냐』

고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자 동인들은 그들의 상소는 일부분자의 강압으로 된 것인데 어떻게 임금께서 칭찬을 할수 있느냐고 승정원에서 쑥덕공론을 했다。임금은 대노하여 승지(承旨)들을 내어쫓고 김우옹을 새승지로 임명했다.

주간女性

科學短信

바퀴벌레 천식유발
在美한국의사 밝혀

바퀴벌레가 천식을 일으킬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최근 美마운트 사이나이병원 알러지과장으로 있는 在美한국인의사 강반여사에 의해 밝혀졌다。강여사는 동병원을 찾는 천식환자 가운데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아파트에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 80년초 6만8천달러의 연구비를지원받아 바퀴벌레와 천식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발명가 金永周씨
로보트제작 나서

【한국일보 시카고支社】 지난 5월 어린이회관에서 선보인 로보트「무쇠돌이」를 어린이회관연구팀과 함께 설계 제작、관심을 모은 金永周씨(52)가 이번엔 하늘을 나는 새로운 로보트 비룡기1호 제작에 나서 관심을모은다.

발명가金씨가 로보트에 관심을 갖기는 10년전。金씨는 10년간의 로보트연구가발판이되어 무쇠돌이 제작에 참가했다.

현재 金씨가 제작중인 비룡기1호는 높이 1백10㎝、몸통둘레 87㎝、무게 20㎏짜리。헬리콥터 엔진(50cc)을이용、시속 50㎞의 속력으로 무선조정에 따라 한가마 정도의 짐을 싣고 20분정도 마음대로 날수 있게한다는것。金씨는 이 로보트를 오는 12월까지 완성、어린이에게 선보이겠단다。金씨는 비룡기1호를 완성하는대로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무인 수륙양용 자동차와 질문에 응답하는 선생님 로보트를 만들어볼계획이라고했다.

張吉山 (1619)
黃晳暎作
崔然石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9)

옥여가 말하고나서 스스로 합장하며 중얼거렸다.

『나무 관세음보살…승려는 승려대로 속인은 속인식으로 잠깐의 묵념 묵상을 드리기로 하겠소이다』

열 세 사람은 제각기 고개를 숙였다。중염을 위시한승려들은 모두 합장하였고、설유징을 비롯한 속인들은 무릎에 손을 얹고 고개를 떨어뜨렸다。바람 소리만 들릴뿐 고요진암의 법당은 갑자기 고요해졌다。그들의 뇌리에는 죽어간 사람들의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겹쳐져서 스쳐갔다。이곳 저곳에서 묵념을 마친 이들이 고개를 들었고 옥여가 확인한 뒤에 말하였다.

『구월산 토포에 관하여는 저도 자세히 알고 있읍니다만、관군이 이곳을 지목하여 감영 군사를 일으킨 것은 되목이골의 산채 때문이었으니 장두령이나 김선비께서 말씀을 해주시오』

『이번에는 내가 좀 묻겠소』

설유징이 길산과 그들 일행이 앉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다.

『관군이 구월산 토포를결정한 데에는 까닭이 있을게요。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오?』

길산이 말하였다.

『우리는、계해년 이후로 산채의 기틀을 잡았고 활빈행을 시작했었읍니다。특히 구월산과 자비령으로 패가 나뉜 뒤에는 서로 분담하여 해서의 곳곳에서 소문이 낭자한 곳부터 시작하여 토호와 고을 수령들을 징치했소。벌써 이세 번이 감사로 있을제 저들은 자객을 보내 송화 무더리까지 들어왔지요。마두렴이 베어 죽였으나 일단 감영에서는 구월산이 눈속의 티와 같았던 것입니다。우리가 조정에까지 크게 알려지게 된것은、작년에 유민들과 힘을 합쳐 해서의 세곡이 모이는 금천의 조읍포창을 습격한일 때문입니다。갑자년 부터의 흉황으로 백성들의 참상이 극에 달하였고、재작년에는 정월부터 역병과 가축의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여 여름 까지에는 많은 마을이 사라져 버렸지요。피해는 팔도 가운데서도 해서가 가장 혹심하여 우리의 활빈행은 마치 단솥에 물붓는 것과도 같았소。우리가 포창을 습격한 데에는 몇가지의 이유가 있었소이다。하나는 그 지방의 가장 큰 부자인 유가라는 자가 사병을 만들어 유민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었으며、관과 결탁하여 세곡선을 부려서 막대한 거재를 쌓았던것입니다。그 자의 재산을 털어서 해서의 남쪽에 모여든 유민들을 살릴 필요가 있었으며、세곡의 조세창을 습격하여 그러한 흉황에 권분이나 눈꼽만한 구호미나 죽 몇 사발로 구휼하는 시늉이나 내면서 여전히 조세를 하는 국가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지요』

설유징이 물었고 박대근이 대답하였다.

『어떻게 조정에서 그일을 주목하였다고 알았소?』

『전 관찰사 임규가 그 임기를 채우기는 커녕 두달만에 쫓겨가고、승지로서 임금의 무릎 아래를 떠나지 않던 신염이 신관으로 부임한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었소』

모눈종이 위의 生 <160>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 놀이 ㊴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땀구멍마다 땀이 배고、의식은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그는 곧 옆에 누운 여자를 확인하려는 작업에 몰입했다.

벌떡 일어난 그는 내 가슴에서 손을 떼어 얼굴과 머리를 더듬었다。그랬다가는 곧 방바닥을 더듬어 성냥통을 찾아 쥐었다。그가 성냥을 긋는 동안 나는 재빨리 하얀 흙벽쪽을 향해 돌아누웠다.

첫번째 성냥을 켜는 일에 그는 실패한 모양이었다。그는 두번째 성냥을 그었고、감은 눈으로도 나는 그 불빛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놀라는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그의 가슴에 이는 파문도… 성냥불이 꺼졌다。그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성냥불 한 개로도 그는 옆에 누운 여자가 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냈을 것이며、지금 그 충격을 견디고 있으리라。나는 곧 그가 나를 깨워 질타해올 것으로 생각했다。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었고、아마 어머니께서는 그 질타를 다소곳이 받아들였을 것이다。나도 그렇게 하리라。혹시 그가 폭력을 쓴다면 그것도 다소곳이 수용하리라.

그가 다시 성냥을 켰다。이번에는 불빛이 내 얼굴 가까이는 오지 않았다。촛불을 켰다。방안이 점점 밝아졌다。나는 잠자코 그의 동정을 살폈다。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주전자꼭지를 입에 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마시는 소리였다。그가 성냥불로 내 얼굴을 확인한지 십분쯤 지나서였다。그는 이제 최초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잠시후、그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담배갑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이어 담배연기의 냄새가 내 코까지 전해졌다。그러다가 그는 문득 일어나 뒤쪽의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아마 나의 침입로를 확인하려는 모양이었다。창문 밖으로 그는 통나무 두 개와 내가 벗어놓은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을 것이다。한참 뒤에 창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히 닫히는 소리였다.

또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다。이번에는 그가 나를 깨울 차례라고 나는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생각했다。과연 그는 내 침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그의 손이 이불 위로 내 어깨에 닿았다。그러나 흔들지는 않았다。아마 그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다。이런 비상식적인 침입의 주인공인 나를 깨워서 질타해 내쫓아야 하는가。아니면 그런 나의 내면의 욕구를 얼마쯤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그는 아마 방바닥에 널려진 내 옷가지들을 점검해 보았을 것이다。그렇다면 그는 내가 이불속에 알몸으로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것이며、잠결이었지만 내가 그의 잠든 몸을 상대로 벌였던 실험들도 어렴풋이는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가 충격으로부터 유혹 쪽으로 옮아오는 게 아닌가하고 생각했다。알몸、그리고 그의 잠든 육체를 상대로 벌였던 실험들이 그에게 떨쳐 버릴수없는 어떤 유혹으로 작용하리라。나를 깨워 질타하는 등、그가 충격을 반사적으로 소화하지 않은 이상 그는 이제 유혹의 포로가 되어 있을런지도 모른다。모르겠다하는 느낌으로 나는 상체를 덮고 있는 이불을 가슴까지 걷어찼다。답답하기도 했지만 마치잠결에 그렇게 하는것처럼。이불 위로 내어깨에 놓여졌던 그의 손이 어디론지 사라졌다。나는 그를 향해 돌아누우며 허공에 손을 뻗었다。그의 어떤 부분이 손에 잡혀졌다。아마 무릎인 듯싶었다。나는 놓치기 싫은 것처럼 그것을 두 손으로 싸쥐었다.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주간女性
여동생과 約婚女에 이 榮光을
—「새챔피언 金煥珍」탄생시킨 트리오 美談
〈權世트 元美京〉

혼수품店 낸 前職 고관夫人
부인이 본 裵星瑞 야구감독
찰즈 皇太子妃 미공개 秘話
논픽션 제임즈·딘 ㊦
鮮于銀淑양의 고독한 事情
TV에 다시 돌아온 趙容弼
테마特輯「부모의 結婚 반대」
무용가 殷芳草씨 미국서 女子 춤으로 人氣
프로 태권도界에 공포의 우먼 파워 등장!

SALESMAN
REQUIRED
TOP SALARY
ALL BENEFIT
DOMINION CITRUS & DRUGS
THE ONTARIO FOOD TERMINAL
CONTACT MR. JAY ZELIKOVITZ
TEL: 259-5481 ext. 17

祝 캐나다 외환은행 정식인가

캐나다외환은행은 1981년7월 30일자로 캐나다 재무성으로부터 캐나다은행법에 의한 차터드은행으로써 정식 인가를 받았읍니다. 이번의 인가는 교민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 입은바 큽니다. 오는 10월6일에는 정식으로 문을 열고 여러분께 모든은행업무를 서어비스 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더많은 애용을 바라겠읍니다.

1981년 7월 30일
캐나다외환은행장
이 장 우

영 업 안 내

예금업무 :

체킹구좌 : 개 인

당좌구좌 : 개인 · 기업

저축예금 : 〃

정기예금 : 3, 6, 9, 12개월
2, 3년

정기적금 : 6개월, 1년, 1년반,
2년

송금업무 :

우편송금 : 송금우표 우송

전신송금 : 전신으로 송금

온라인송금 : 수취인이 외환은행에 체킹구좌를 개설한 경우 동구좌 앞 즉시입금

대출업무 :

개인대출(소비자금융)

예금대출(적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수출입 금융

수출입업무 :

신용장 개설및 매입

수입화환어음 추심

수출입 상담

기 타 :

신용조회 · 영업상담 · 투자과세상담 · 경제조사 · 기타부수업무

캐나다외환은행

☎ : 364—2890, 290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30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30달러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애들(2명) 봐주실분
가게 : 1-723-8632(오후5시까지)
집 : 1-571-0725(오후5시이후)
(콜렉·컬로 전화하십시요) MRS. 홍

룸·메이트 구함 : 여성에 한함
베더스트×듀폰
☎ : 531-5200 미스. 유(오후6시이후 연락)

급 구
웨이트레스 약간명 모집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스토아 헬퍼 구함
-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과일및 뒷일 해주실 분으로
  VAN트럭이나 대형 왜건 가지신분 구함.
  월수입 $1500.

☎ : 624-5817

PHOTO SHOP에서 일하실 풀타임 구함
REXDALE지역
☎ : 486-6455

캐네디언 식당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미혼여성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 : 362-3170 미스타 또는 미세스 리

일본식당 부엌에서 일하실분 구함
(오후3시~5시 사이)
☎ : 924-9501 459 CHURCH ST.
MICHI JAPANESE RESTAURANT

①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우대 좋은장소
1000마리당 $35
②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데리
A & A METRO BAIT SHOP
630 QUEEN ST. E. (Queen ×Broadview)
☎ : 463-4997

VENDING TECHNICIAN
Repair & maintain all types of Vending equipment, food service equipment etc.
Ability to read & understand electrical diagram essential.
Car necessary.
5years practical experience or equivalent in the field.
CNIB
☎ : 486-2570

매매및 양도

이주관계로 야마하 피아노급매 :
(3년사용) MRS. 서
☎ : 635-6273

성업중인 가게급매 : 주매상 $5000, 리스5년+5년 옵션, 렌트 $400, 가격 $27000+스탁
☎ : 766-1990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가게급매 : 주매상 $4000~$4500보장, 렌트 월 $600 (1 베드룸 포함), 리스2년+4년 옵션, 가장 적당한 오퍼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베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브람리 하드웨어 비즈네스 매매
크기 : 1800sq. ft. 리스 : 긴 기간 다운페이먼트 : $10,000, 장소 : 우수함.
주위에 경쟁할 가게 없고 새집들이 매일 들어서는 지역
연락처 : 630-5353 FRANK PERRONE
BELSTAR REALITY LTD.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500,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타운하우스 매매 : 4 베드룸, 가격 : ₩62,500,
(DON MILLS × FINCH)
☎ : 491-3825, 27 SLENDER FERNWAY

아파트단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000, 리스 5년
☎ : 921-0034, 783-6464(오전10시~오후6시)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59,900, 주매상 $5,600, 렌트 $1,100
리스4년+5년 옵션가능함 ☎ : 1-579-4507(WHITBY)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화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6827

로마노 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음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 Book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툰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식 품 점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 751-3851 이 동 현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536-7875.

기 타

변호사 개업(黃永異 律師)
WING H WONG
BARRISTER & SOLICITOR TRADE MARK AGENT
OFFICE : SUITE 214, 4455 Sheppard Ave. E. (at Brimley)
Scarborough Ont. Tel 298-6767

PICTURE FRAME WAREHOUSE 조 혜 숙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코스모스

숙녀복(SIZE 5-16)
아동복(신생아-16)
항상 저렴한 가격
월~토(오전10시~7시) 일(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2003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사무실 렌트

가게렌트 : 부촌안에 있는 프라자 BURN KING, BAKERY DELICATESSEN 또는 COIN LAUNDRY 좋은 장소임 1600-2600 sq. ft. (싼렌트)
531 WEDGEWOOD DR. BURLINGTON
☎ : 844-3151, 844-012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캐나다및 퀘벡주 경제전망 ①

정 희 수 박 사

◇정희수 박사

〈정박사 약력〉

—1954년 서울물리대 3년중퇴, 캐나다 이민, LAVAL대학에서 석사, 토론토대학에서 박사(1966).
—온타리오주정부 경제개발부 근무.
—서드베리 로렌쵼 대학, 셜부룩대학, 몬트리얼 대학비숍대학 교수역임.
—1975~76 연방정부 경제개발 연구원
—퀘벡 자유당 주택담당 경제고문.
—현 퀘벡대학 경제학과 교수, 캐나다 한인학회 회장.

몬트리얼 소재 퀘벡대학교의 경제학교수 정희수 박사는 지난 6월말 몬트리얼 한인실업인협회 주최의 경제세미나(※본보7월9일자)에서 「캐나다및 퀘벡주 경제전망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캐나다에서 분리독립하려다 실패한 퀘벡주의 경제를 세밀히 분석한 정박사는 7가지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를 제시했다.

정박사는 금년도의 퀘벡경제는 전망이 어두우나 가장 나쁜 주는 온타리오주라는 점, 퀘벡주민의 생활수준이 당분간 향상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의 강연내용을 연재한다.

1. 장기적 전망

퀘벡의 인구는 약 6백만. 캐나다 전체의 26.8%이다. 61년도 인구는 전체의 28.8%였으므로 인구감소 현상의 계속을 알 수 있다.

퀘벡의 제1차 산업의 비준(比準)은 13.2%. 2차산업은 24.3%. 3차산업의비준은 24.3%이다.

퀘벡경제의 중요성은 천연자원에 있다. 철광은 전국 생산량의 40%: 석면(아스베스토스)은 75%. 금광은 24%. 알미늄은 47%를 산출한다. 이런 자원이 고갈되려면 10~1백년이 걸린다.

특히 전력자원은 전국서 가장 풍부하며 온타리오주 다음으로 제조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직물산업의 60%를 비롯, 전자상품, 운송기계, 항공기 부품, 석유화학품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퀘벡의비중이 높다.

즉 퀘벡은 인구·경제·사회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퀘벡주는 몇가지 역사적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기전망은 이런 취약점의 개선 가능성 여부에 달렸다.

이런 약점은 실업률을 온타리오보다 항상 2% 가량 높였고, 소득및 생활수준에서 온타리오주보다 10% 정도 낮다.

취약점을 대별하면—.

① 주의 인구가 적어 시장이 좁으므로 수출에 크게 의존. 국제시장의 수요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장기경제성장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다.

② 외부자본의 통제가 심각하다. 제조산업은 프랑스계 퀘벡인의 통제는 불과 15.4%. 비퀘벡 캐나다인의 통제는 42.8. 외국인의 통제는 41.8%나 된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개편 강화하기가 어렵다.

③ 경제성장의 중요요소인 제조산업의 구조가 약하다 가장 성장률이 큰 철광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의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온타리오주의 이같은 비중은 24%이다.

④ 직물산업이 주로 몰려있다. 정부의 수입제한이 아니면 존립이 어렵다.

⑤ 경제중심지의 서부지역 이동으로 역사적 북미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온타리오주도 영향을 입고 있다.

⑥ 온타리오주와 비교할 때 산업체의 규모가 작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62%를 공급하는 중요부문인데 외국자본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통합(Integrate)되지 못해서 현대기술 개발의 도움을 못 받는다.

(계 속)

◇26일 온타리오 「위노나」에서 열린 미스·누드·월드대회(세계나체대회)에서 미스·누드로 당선된 온타리오의 페기·맥킨태거(20)양. 맥킨태거양은 1만달러의 상금을받았다.

여성들 불평등 대우

남성의사들 편입견 심해

(몬트리얼)퀘벡주의 여성들은 남성 의사들로부터 무시당해 왔다고 퀘벡주여성옹호위원회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남자의사들은 수동적이고 연약하며 남성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졌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퀘벡주 간호원의 85%는 여성이고, 의사의 87%는남성이며 주정부 보건예산의 60%를 전체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사용해 왔다.

여성들의 연평균 의료비는 남성의 72달러보다 훨씬 많은 102달러나 된다. 또 심리적 치료를 받는 환자의 67%는 여성이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79년 캐나다 근로여성의 67%가 연7천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졌으나 남성은30%만이 정도의 소득을 가졌다.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HOW ARE YOU DOING?

실제로 영어가 사용되는 미국에 와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표현들이 많음을 누구나 느끼게된다。그중의 하나가 매일 인사하는 바로 「안녕하세요?」 How are you doing?의 표현이다。

물론 이 문형은 How are you?보다는 격식을 덜 갖춘 표현이지만저속한 표현은 아니다。

카터가 취임직후 미국사상 최초로 있은 「카터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 Ask President Carter. 라는 국민과의 전화대화 프로에서 카터 대통령은 「통화자」 caller와의대화에서 How are you doing?의 표현을 사용하는것을 들었을것이다。이와같이 How are you doing? 이 문형은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으며 이때의 대답으로는 「좋아요」 Fine, Pretty good, Good. 등을 사용한다。이밖에도 How's it going? What's happening?등 여러 표현들이있다。

A : Hi. How are you doing?
B : Pretty good. Yourself?
A : Keeping busy. How's your business?
B : So-so.
A : How about a drink tonight?
B : Fine. What time do you want to make it?
A : 하이, 안녕하세요?
B : 좋습니다. 당신은?
A : 계속 바쁩니다. 사업은 잘되세요?
B : 그저 그래요.
A : 오늘밤 한잔하는게 어때요?
B : 좋아요, 몇시에 만날까요?
※yourself=How about yourself?
Keeping busy : 계속 바쁘다.
So-so : 그저 그렇다.

본 칼람담당자의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교육처 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 수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본 미주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특수발음 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 있음.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 화 : (312) 966-4050
책 : 각권13불
카세트 : 1권용(35불), 2권용(40불), 3권용(40불).
※US마니오더에 한하며 이상은 동기료가 포함되어 있음.

피카소 재생화 600점

50만달러어치 강탈

(뉴욕)약50만달러로 추산되는 피카소의 재생복사화 600점을 실은 밴트럭이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됐다.

28일 캐네디 공항에서세관으로 운반되던 이, 그림들은 차가 신호등에 걸려 멈추었을때 두명의 무장괴한에의해 납치, 사라졌다.

이 복사그림들은 피카소의 딸 마리나·피카소가 유산으로받은 그림들을 재생한 것으로 15개씩 40뭉치이다.

복사허가를받은 「재키」화랑 주인 허만·피네소드씨는 복사화 한장에 약800달러씩 600장, 모두 약50만달러어치가 된다고 말했다.

무장강도는 운반차량 이 정지하자 차에 강제로올라 차를몰고 도망했다가 후에 운전사를 풀어줬다.

〈휴간·안내〉
본사는 오는 3일 시빅·홀러데이를 맞아 휴무합니다. 3일자 한국일보는 4일 발행 됩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김용순무용연구소
동 부(SCARBOROUGH)
장소 : 한인회관대강당(20 MOBILE DR.)
시간 : 수요일 : 5시~7시30분
토요일 : 10시30분~3시까지
서 부 (MISSISSAUGA)
장소 : Burnhamthorpe Community Center Lounge "C"(1500 Gulleden Dr) (Burnhamthorpe & Dixie)
시간 : 금 : 6시~7시30, 7시30~9시까지
중 부(DOWN TOWN)
장소 : Western Y. M. C. A(15 Robina Ave. (on St. Clair)
시간 : 화 : 5시~6시30분 학생반
7시~8 : 30분 주부특별교실
문의전화 : 751-889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아세아한약방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특수 한약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678 BLOOR ST. W.
☎ : 530-0522 조 지 심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퀸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